산사의 가을, 음악과 함께 오네

덕주사 · 미황사 · 도리사 · 부석사, 풍성한 선율로 손님 맞아

이제 낙엽이 춤추는 계절이다. 음악선율처럼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잔잔한 감동과, 때로는 격렬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산사음악축제들이 추석을 맞아 연이어 공연된다.

맑은 산사의 공기를 뜨거운 열정의 공기로 바꿔놓을 축제의 현장을 제대로 느껴볼 기회이다. 청정도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가을을 제대로 맞이해 보자.

9월 12일 열린 제천 덕주사 산사음악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벌써부터 찬 공기가 뒤덮은 월악산 자락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9월 12일 제천 덕주사에서 열린 산사음악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뜨거운 숨을 토해내기 바빴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이번 축제는 3시간 가량으로 진행돼 가수 김용임, 박정자, 조항조, 도신 스님과 색즉시공, 안치환 등이 출연해 그 열기를 더했다.

덕주사 산사음악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사음악회의 고전적인 공연에서 벗어나 다소 파격적이고 대중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그래서일까. 행사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가수들의 공연에 '앙코르'는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렇게 덕주사의 밤은 많은 관객들이 쏟아내는 열정의 소리로 뜨겁게 뒤덮였다.

덕주사 주지 원경 스님은 "덕주사가 위치한 충북 제천은 아직까지 문화의 혜택이 적은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다소 힘든 선택이었지만 행사를 대중적으로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덕주사 산사음악축제는 지역 문화행사로, 지역포교활성화로 그 행보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덕주사 산사음악회 수입전액은 지역 의료봉사후원, 소년 · 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장학금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다목적 지원금으로 쓰인다.

몸도 마음도 살찌울 수확의 계절 가을에 눈과, 귀를 즐겁게 해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산사음악회들이 잇달아 공연된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산사에 내려앉은 단풍들도 구경하고, 가을정취를 느끼며 음악공연도 들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터.

아름다운 해남 땅끝마을에 자리한 미황사(061-533-3521)는 10월 24일 '땅끝마을 미황사의 꿈'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괘불재와 미황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남도 지역의 음악과 들노래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번 음악회는 10주년을 맞아 더욱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음악회와 함께 괘불재가 진행돼 해남 땅끝에서의 오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자리이다.

불교미술, 음악, 음식 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그야말로 불교종합예술축제이다. 황금빛 저녁노을 뒤 반짝이는 별이 뜰 때까지 남도의 정취와 음악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다.

해동 최초가람 태조산 도리사(054-474-3737)는 10월 17일 경내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원한 솔바람이 우리의 몸을 적시고, 따뜻한 음악이 가슴을 적시는 이번 행사에는 애플재즈오케스트라, 心 so Good, 김영찬, 한국문화공동체 BOK(천년의 소리), 웅산 등이 출연한다. 자연의 소리와 사람이 만드는 소리가 하나 되는 음악회에 많은 이들의 함성소리가 보태질 시간이다.

높은 푸른 가을하늘 아래로 코스모스들이 흐드러지게 수놓고 있는 서산 부석사(041-662-3824)는 10월 10일 제7회 서산 부석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순박하게 피어난 코스모스 사이로 음악들이 춤을 추는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름다운 선율과 율동, 언어 등이 한데 자리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나희덕 시인, 도신 스님과 색즉시공, 방용렬 테너, 관음무용단 등이 출연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개막 제24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9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막됐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대상을 받은 명천 스님의 '복전의(福田衣)'를 비롯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총 60점의 당선작이 선보인다. 사진은 운영위원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개막식 참가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모습.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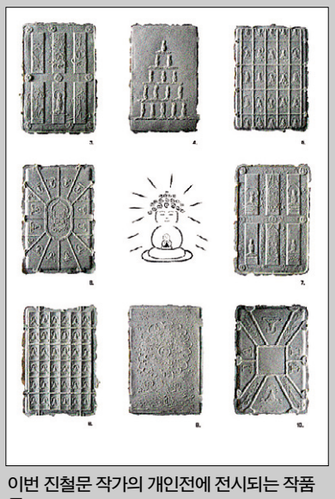
교리 위에 본래부처 새기는 작업

진철문, 9월 24일~10월 14일 포곡도서관 '채움'서 전시

"우리는 본래 자신이 붓다임을 알아 차려야 한다."

불교에서는 얼마든지 깨달음을 통해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조각가이자 시인인 진철문은 저마다 붓다가 될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다.

불교의 깨달음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그는 포곡도서관 전시관 '채움'에서 '우리 모두가 붓다입니다'를 주제로 9월 24일~10월 14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진철문 작가의 개인전에 전시되는 작품들.

한지에 부조로 조형해 깨달음을 표현하는 작가는 흔히 버려지는 스치로폼 박스의 뚜껑을 사용해 밑그림을 그린다.

그는 작품 활동에 있어서 불교사상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시한다. 하지만 명동성당 초대전, 한국정교회 작품전을 통해 종교의 소통과 숭고한 의미의 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말해주기도 했다.

진철문은 작품 활동에 있어 "불교의 근본교리가 바탕이 돼 시대와 문화에 맞는 현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조상들의 얼이 배어있는 한국미술, 불교미술이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작품들은 소조불상에서부터 종이불상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부처님들을 조성하며, 현대적 느낌이 강한 감상용까지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진철문의 조각은 "사유의 표상으로 불교의 철리를 요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禪)과 선정을 통해 선(禪) 조각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정립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작가는 1970년대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해왔지만,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의 감성과 정서를 불교적으로 순화시키는 예술가다.

자신을 뽐내기보다 예술과 불심이 하나가 되는 피안의 세계를 은근히 추구하며, 무색계의 유식학적인 사유를 색계에서 보고 만질 수 있게 표현한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미술의 길을 걷는 것은 힘들다 말하면서도,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작가의 열정과 순수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031)324-4631~2

이은정 기자

사찰에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대구 보성선원, 21~27일 '가을영화제' … 10월 10일 음악감상회

"사람 많고 화려한 영화제, 이젠 걱정 없어요~. 사찰에서 영화 보면 되니깐요~. 참 쉽죠잉~."

영화제라고 해서 꼭 화려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라. 개그우먼 박지선의 유행어 '틈새시장 공략법'처럼 조용한 절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구 보성선원(원장 한북)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석 달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제를 연다. 9월 21~27일은 '가을 영화제'를 주제로 근현대 세계 미술사 거장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미술영화 특집으로 꾸며졌다.

보성성원은 8월 13일 영상매체인 블루레이(blue-ray)를 설치해 영화관 수준의 영상과 음향시설들을 갖췄다. 그 후로 영화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라 생각하고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어 10월에는 매주 토요일을 '영화와 음악의 날'로 정해 음악 감상과 영화 감상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10월 10일은 제11회 음악 감상회 프로그램을 열어 아련한 추억여행으로 초대한다.

이번 음악 감상회에는 피아니스트 송미희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와 쇼팽의 녹턴 20번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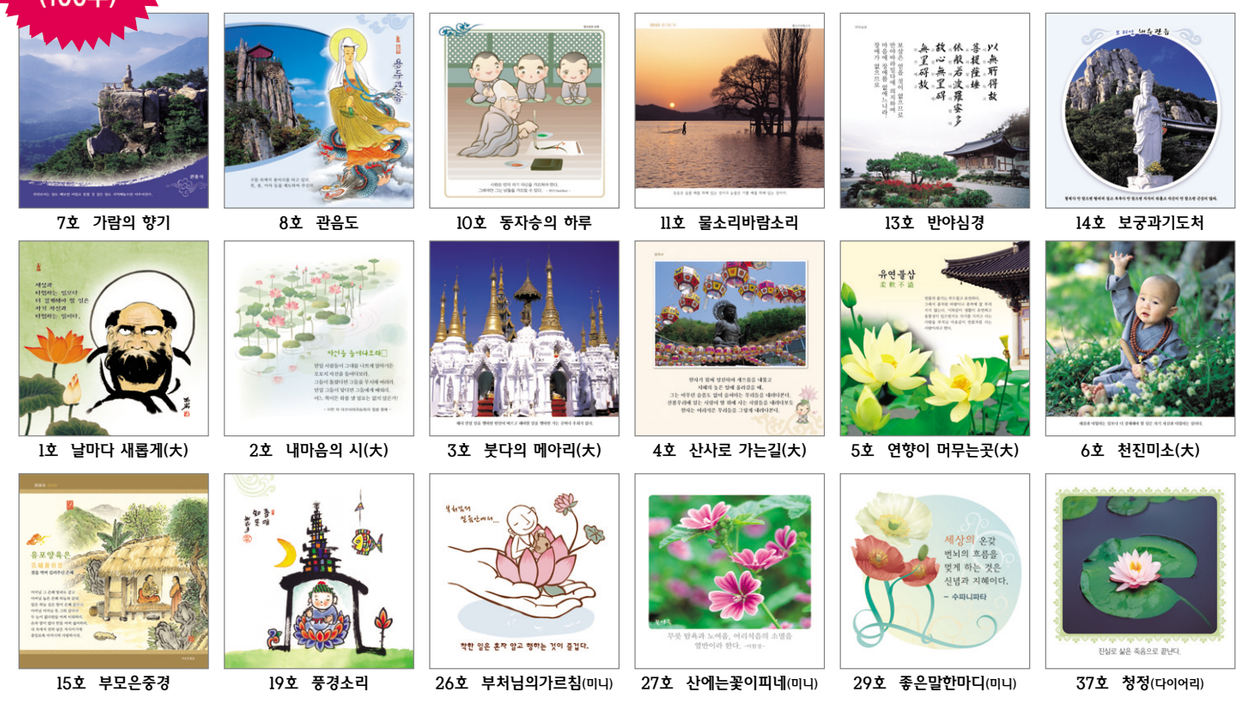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고 각자의 독특한 틀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 보성선원이 준비한 이 같은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틈을 좁히는 자리이다.

다른 세계의 창을 두들겨 다양한 삶의 형태를 영화를 통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인 만큼 부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055)621-3333

이은정 기자

2010 불교달력출시 ※ 달력 1~42호 [국6절 · 12절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한지 · 탁상] www.buddhashopping.com

12절 100,000원 (100부)
창립35주년 기념세일
달력가격 대폭인하


7호 가람의 향기 | 8호 관음도 | 10호 동자승의 하루 | 11호 물소리바람소리 | 13호 반야심경 | 14호 보궁과기도처
1호 날마다 새롭게(大) | 2호 내마음의 시(大) | 3호 붓다의 메아리(大) | 4호 산사로 가는길(大) | 5호 연향이 머무는곳(大) | 6호 천진미소(大)
15호 부모은중경 | 19호 풍경소리 | 26호 부처님의가르침(미니) | 27호 산에는꽃이피네(미니) | 29호 좋은말한마디(미니) | 37호 청정(다이어리)

불서보급 35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특별기획카렌다
20 성불하소서(두달)
41 42 한지달력 2종 — 한지 달력 150,000원 (100부)
40 탁상용카렌다 — 탁상 달력 250,000원 (100부)
두달 달력 70,000원 (100부)

달력규격
국6절(大) 규격:30.5×31.0cm
12절 규격:25.8×26.5cm
두달 규격:25.8×26.5cm
차걸이 규격: 9.0×15.5cm
미니 규격: 8.9× 9.5cm
다이어리 규격: 9.5×13.4cm
탁상 규격:26.2×19.0cm
한지 규격:30.0×45.5cm

달력할인가
국6절 ……1,300원 (1부)
12절 ……1,000원 (1부)
두달 ……700원 (1부)
차걸이 ……400원 (1부)
미니 ……400원 (1부)
다이어리 ……600원 (1부)
탁상 ……2,500원 (1부)
한지 ……1,500원 (1부)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www.buddhashopping.com
TEL (051)515-8888,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 총 42종의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051)515-8888